

# 도심 달리며 남긴 'GPS 기록'도 예술이 됐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시즌인 7, 8월이 안 왔어도 무덥다. 물리적으로 덥든,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덥든, 가볍지만은 않은 일상이다. 선거 뒤를 자신이 밟았던 후보가 낙선돼 무거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물리적으로 뛰든, 멘탈적으로 뛰어가야 하든 우리네 삶은 한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뛰는 서울어를 가장 잘 대변하는 전시가 마련된다. 도심 달리며 남긴 GPS 기록마저 예술이 됐다. 작품 당 4~7km를 달렸다. 작가들의 상상력이 빛나는 전시는 눈길에 갈 수 밖에 없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지난 5월 22일 개막, 오는 28일까지 '달리기' ('Run! Run! Run!')라는 타이틀로 한 기획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본능적인 움직임인 '달리기'를 조명하는 만큼 예술과 러닝이 만나는 자리로, 그로 인해 연상되는 다채로운 장면들을 만날 수 있다. 참여 작가는 강덕봉(서울시립대 조각학과 교수) 성낙진 성립 윤예지 이우성 진훈 네룡TV 등 총 7명이다.

굳이 오래 달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간은 달리며 살아났고, 서로를 만나며 세계를 확장해온 것은 확실하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태도이자 감각, 리듬, 그리고 동시대인의 풍경으로서 여러 의미를 갖는 '달리기'를 두루 살펴본다.

우선 달렸을 때 느낄 수 있는 감각들과 풍경을 헤아려 볼 수 있다. 달리는 경우 들숨과 날숨, 빨라지는 심장 박동, 반복되는 팔과 다리의 리듬, 그리고 햇살이 대지를 대우기 전 새벽 공기의 서늘함과

밤공기 속 남아 있는 열기까지 느껴볼 수 있다. 또 자동차를 타고 건물 사이를 빠르게 스쳐 지나갈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도시의 감각들을 오히려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일반의 느낌은 적어도 이렇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반 입장과 예술 입장은 다를 터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일반과는 달리 사유를 통해 표현단계를 진입, 달리는 움직임의 동시대적 의미 등을 작품에 투영하게 된다. 작가들은 저마다 달리의 생생한 에너지를 담아낸다.

## 광주신세계갤러리 이색적 'Run' 타이틀로 기획전 진행 28일까지 총 7명 개성적 시각 투영 '달리기' 작품 선배 "예술과 러닝의 만남... 관람객들에 건강한 활기 전달"

먼저 성낙진 작가는 캐릭터 '미스터 블랭크'를 통해 캔버스 속을 힘차게 질주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마라톤 '맹랑린' 포스터의 주인공 윤예지 작가는 판화, 드로잉, 디지털 작업 등 다양한 매체로 분위기를 담아낸다. 이어 성립 작가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통해 전시장 전체에 리듬감과 생동감을 불어넣고, 러닝 인플루언서 네룡TV는 직접 광주도심을 달리기 하며 남긴 GPS 기록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아트리에 도전한 결과물이다. 전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Run'이라는 단어가 가진 확장된 의미에도 주목한다. 영어 단어 'Run'은 단순히 뛰는 행위를 넘어 무언가를 운영하고, 지속하며, 흘러가게 만드는 움직임까지 포함한다.

이우성 작가는 걸개그림을 통해 자신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달리는 사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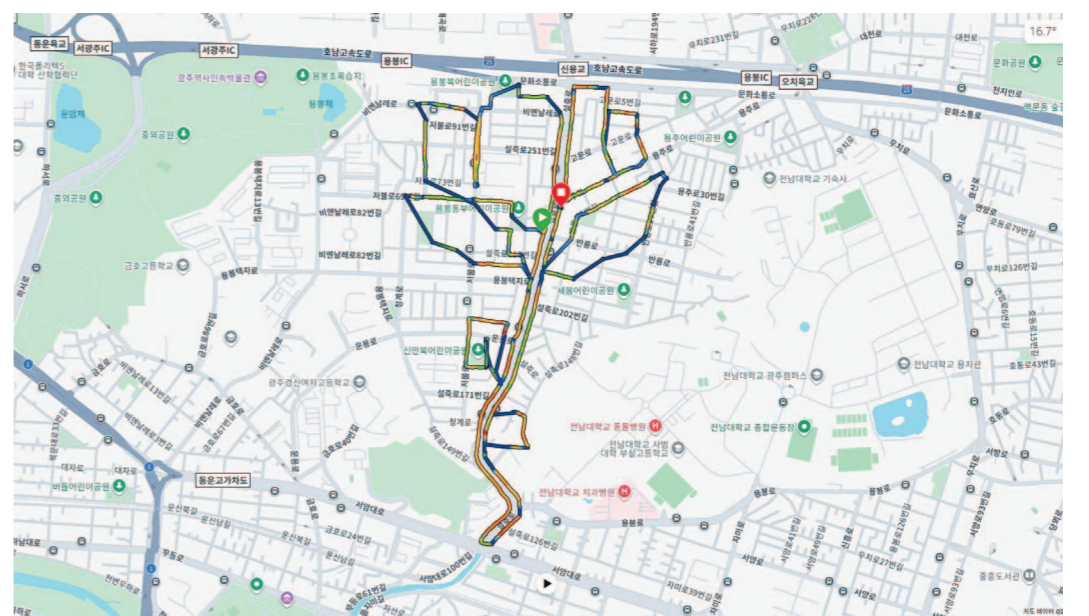
빛대어 이야기하고, 강덕봉 작가는 움직임을 담아낸 조각 작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리듬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2014년 제16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진훈 작가는 회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목격지를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달려도 괜찮음을 말해준다.

이번 전시는 그렇게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을 가진 '달리기'의 의미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 모아낸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발상이 녹아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전시 기간 중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시의 작가로 참여한 러닝 인플루언서네룡TV와 함께 광주전 일대를 달리는 특별 러닝 이벤트가 지난 5월 23일 진행됐으며 결과물은 유튜브에 업로드됐다. 또한 전시 기간 전시장 입구에서 '전시 완주 인증 사진'을 촬영하거나, '나만의 아트런', '5km 완주'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한 관람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해 전시의 에너지를 전시장 너머까지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기획자인 백지희 큐레이터는 "예술과 러닝이 만나는 전시로 보면 된다. 달린다는 의미를 예술가들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만큼 이렇게 작품을 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다. 아무래도 관람객들도 정형화된 작품만을 보는 다른 전시와는 달리 건강한 활기와 즐거운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속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각자 맞는 속도로 작품을 감상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네룡TV 작 '플러워 러닝'



성낙진 작 '나는 나에게 도착하는가' ▶

## 창·제작 '사사로운 사서' 명동서 상연

ACC재단, 20~28일 명동예술극장서 국립극단 두번째 협업...9월 중국 초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 연극 '사사로운 사서'를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당재단과 국립극단이 지난해 공동 기획한 '로제타'의 호응에 힘입어 다시 한번 협업해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완성도 높은 공연을 관객에게 선보이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사사로운 사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콘텐츠 공연 개발 과정'을 통해 제작한 작품이다. 지난해 초연 당시 94%의 높은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았다. 오는 9월에는 중국에서 열리는 '베세로 페스티벌'에도 초청돼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도서관과 책의 의미를 탐구한 이번 공연은 사서와 장서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책과 사람, 공간이 맺는 관계를 섬세하게 풀어내며 깊은 울림을 전한다.

작품은 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연극이다. 침수된 장서의 복구와 인물의 내면적 회복 과정을 교차해 보여준다. 특히 도서관을 무대 위에 그대로 구현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였다. 서로 다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 연극 '사사로운 사서'를 오는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선보인다. 사진제공=ACC재단

가치관이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번 공연에는 이지현(드라마 '폭삭 속삭였다' 출연), 손지은(드라마 '은밀한 감사' 출연) 배우를 비롯해 박용우, 장호인, 황성경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해 열연을 펼친다.

김명규 사장은 "연극 '사사로운 사서'는 관객이 극장에 들어서서 순간 도서관의 분위기에 깊게 몰

입할 수 있는 작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과 유동성을 통해 전당의 우수한 제작물을 더 많은 관객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공연 기간 중인 27일에는 강현주 연출과 출연진이 함께하는 '예술가와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예매는 국립극단과 NOL티켓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사서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www.view2018@gwangnam.co.kr](http://www.view2018@gwangnam.co.kr)

정혜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격월간 동시 웹진 '동시구명가게' 창간

동시문학 새 플랫폼 제안...30일까지 창간호 원고 공모

동시를 위한 새로운 문학 플랫폼이 문을 연다. 동시 '빛방울'과 '발' 등으로 널리 알려진 권오삼 동시인이 운영하는 다음카페 동시마을 동시회관은 오는 8월 1일 격월간 동시 웹진 '동시구명가게'를 창간하고, 창간호 수록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시구명가게'는 기성과 신인의 경계를 넘어 좋은 동시를 함께 읽고 나누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동심을, 어른들에게는 잊고 지냈던 순수한 감각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 기획된 온라인 동시 문학 플랫폼으로 이해하면 된다.

웹진은 회원 작품의 지속적인 발표와 공유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우수 작품은 향후 공동 시집 및 앤솔로지 출판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출판으로 이어지는 동시 창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동시구명가게'라는 이름에는 누구나 마음 편히 들러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처럼, 한 편의 동시가 독자의 하루에 오래 머무는 여



동시구명가게 창간호 원고 공모

운이 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겼다.

책임편집을 맡은 김류 동시인은 "동시는 모든 세대가 자신의 가장 맑은 마음과 다시 만나는 언어라고 생각한다"며 "한 편의 동시가 누군가의 하루를 잠시 멈춰 세우고 따뜻하게 비추는 작은 빛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간호 원고 공모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카페 동시마을 동시회관cafe.daum.net/dongsigongbu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http://www.rainidea@gwangnam.co.kr)

## 황혼의 해변에서 묻는 사랑의 얼굴

30일 광주예당 '귀여운 여인' 무대

황혼이 내려앉은 해변. 나란히 걷는 부부의 뒷모습은 평온하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따뜻하기만한 감정의가. 사랑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는가, 아니면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는가.

광주예술의전당이 오는 30일 오전 11시 소극장에서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단편선 시리즈Ⅲ '귀여운 여인'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을 주제로 문화와 미술, 음악을 한 무대에 엮어 사랑과 자아의 관계를 들여다본다.

공연의 중심에는 러시아 문호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 '귀여운 여인'이 놓여 있다. 1899년 발표된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 삶을 자신의 전부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여성 올렌카의 이야

기를 담고 있다.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잃어가는 인물의 모습은 지금도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무대는 문학에만 머물지 않는다. 덴마크 화가 페데르 세베린 크뢰웨르의 대표작 '스카겐 해변의 화가와 그의 아내'도 함께 소개된다. 북유럽 특유의 맑은 빛과 서정성이 담긴 이 작품은 해변을 거니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 사랑이 품은 고요한 온기를 전한다.

음악은 북유럽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진다.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으로 문을 열고 '트루트호겐의 웨딩',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3악장, '솔베이지의 노래', 피아노 트리오 '하프트라스크' 1악장 등이 이어진다. 섀넌과 기타리, 그리움과 서정을 담은 선율들이 문화와 미술 사이를 오가며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황해윤 기자 nab@gjdream.com

공연 해설은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가 맡는다. 문화와 미술, 음악을 넘나들며 작품의 맥락과 감상의 길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연주에는 피아니스트 황건영, 바이올리니스트 김유나, 첼리스트 허대연이 함께한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이번 공연이 사랑 속에서 타인에게 스며드는 인간의 모습과 그 안에서 발견하는 내면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람은 초등학교 이상 가능하다. 입장료는 R석 2만원, S석 1만원.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예스24를 통해 할 수 있다.

## '광주미술상' 창작지원 청년작가 도전하세요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작가 공모 접수 22일까지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신문웅)는 2026년도 창작지원 대상 작가를 공모한다. 올해로 32회째인 '광주미술상'은 역량있는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광주·전남 원로·중견 미술인들이 매년 이어오고 있는 지역미술 활성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광주·전남지역에 연고를 둔 만 2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미술인 및 단체이다. 지역 연구 기준은 광주·전남 출생이거나, 광주·전남 소재 대학 미술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타지 출신일 경우 광주·전남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활동한 작가이며, 5년 이내에 개인전을 진행해야 한다.

(24일)에서 후보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하게 된다. 평가기준은 작가활동의 적구성(20%), 작품세계의 창의성(40%), 전시계획의 합리성(20%), 작품 활동의 공적 기여도(10%), 성장 기대치(10%) 등에 주안점을 뒀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작가는 제32회 광주미술상 수상자가 돼 개인전 준비과정의 창작활동비(분할자금) 및 도록제작비, 전시운영 인건비 등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전시공간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작가와 대화의 장도 함께 지원된다. 접수는 22일까지이며, 응모원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포트폴리오), 주민등록초본 등을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사무국(gj-art@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할 수 있다. 문의 010-2646-7506.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http://www.rainidea@gwangnam.co.kr)